Stage 11 Flans Across the River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로드니는 다섯 개의 시럽이 듬뿍 든 끈적이는 플랜 파이들을 강 반대편 가게에 배달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구경 온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앞표지를 보고 제목을 함께 읽으세요. 뒤표지의 글을 읽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일지 물어보세요. - 3쪽, 12쪽 그리고 24쪽에서 각 장의 제목을 읽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일지 나쁜 결말일지 물어보세요. - 1쪽에 로드니의 그림을 보세요. 아이들이 그가 어떤 아이인지 추측해보게끔 해보세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한 쪽씩 번갈아 가면서 15쪽에서 22쪽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으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아이에게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묻고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 아이들과 함께 로드니가 또 어떤 색다른 방법으로 플랜 파이를 배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만약 로드니가 시럽이 듬뿍 든 끈적이는 플랜 파이 대신에 식빵이나 케이크를 배달했다면 이야기가 재미있었을지 물어보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플랜 파이 소동 “로드니!” 제빵사 보드니 씨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고 그의 아들을 불렀어요. 그의 아들 로드니는 큰 오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보드니는 로드니의 귀를 잡아당겨서 잠에서 깨웠어요.
p4	“잘 들어. 이 시럽이 듬뿍 든 끈적한 플랜 파이 다섯 개를 크랩 씨의 가게에 가져다 주길 바라.” “네, 아빠. 강 반대편에 있는 크랩 아저씨 가게요.” 로드니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그래, 그리고 꾸물거리거나 엉뚱한 생각 하면 무척 화낼 거야. 크랩 씨는 이 플랜 파이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받길 바라니까.” “네, 아빠. 제게 맡겨주세요.” 로드니가 말했어요.
p5	로드니는 플랜 파이가 든 상자를 그의 팔로 들고 크랩 씨의 가게로 떠났어요. 로드니는 나무다리가 나올 때까지 강둑을 따라 걸었어요. 혹은, 그 나무다리가 있던 자리로 말이에요. 그리고 로드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나무다리가 무너져 있었어요. 다리의 중심부가 강으로 무너져서 멀리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로드니가 말했어요.
p6	크랩 씨는 강 반대편에 있는 가게에서 나와 로드니를 불렀어요. “내 플랜 파이를 가져왔니, 로드니?” 크랩 씨가 외쳤어요. 로드니는 빙빙 도는 강을 바라보고 시럽이 듬뿍 든 끈적한 플랜 파이를 바라봤어요. “가져왔어요, 크랩 아저씨.” 로드니가 외쳤어요.
p7	“나는 거기 말고 여기로 가져오길 바라.” 크랩 씨가 외쳤어요. “다리가 없이는 건널 수 없어요.” 로드니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법이 떠올랐어요. “가려는 중이에요, 크랩 아저씨. 이 상자를 배처럼 사용해서 플랜 파이를 그쪽으로 띄워 보낼게요. 준비하세요.”
p8	로드니는 플랜 파이 상자를 물에 띄우고 숨을 멈추었어요. “가라앉는다면 최악이야.” 로드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플랜 파이들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치 작은 배처럼 강으로 떠내려갔어요. “현명해.” 로드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p9	그러나 그때 상자가 강물의 흐름에 휩쓸려서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몇몇 오리가 강으로 뛰어들어 플랜 파이를 쫓기 시작했어요. 오리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자 강 맞은 편에서 몇몇 사람들이 크랩 아저씨 옆으로 왔어요. 그들은 이 야단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었어요.
p10	로드니는 강둑을 따라 달리며 떠내려가는 플랜 파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로드니는 막대기를 쥐고 상자를 뭍으로 되돌리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그 때 오리들이

	플랜 파이 하나를 멀리 들고 가버려서 플랜 파이가 다 사라질 지경이었어요. “네가 한 짓을 잘 봐. 나는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그리고 아빠가 무척이나 화내실 거야.” 로드니는 오리에게 말했어요.
p11	오리들은 주변을 첨벙거렸어요. 로드니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바라보면서요. 로드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강둑에 주저앉아 생각했어요. 로드니가 앉자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바람은 크랩 씨의 가게 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물론 나는 이것들을 띄워 보낼 거야.” 로드니는 생각했어요.
p12	2. 그다지 현명하진 않아 로드니는 뛰어서 셔츠를 벗었어요. 막대기를 돛으로 써서 시럽이 듬뿍 든 플랜 파이의 상자를 범선으로 만들었어요. 상자는 첫 항해 이후로 조금 젖었기 때문에, 로드니는 플랜 파이 하나만을 강에 띄워 보냈어요.
p13	바람은 셔츠자락을 붙들었고, 상자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로드니는 다른 강둑에서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법 많은 사람이 크랩 씨의 가게 앞에 모였어요. 오리가 꽥꽥거리며 상자를 쫓기 시작했어요. "아주 현명해." 배가 절반쯤 도달했을 때, 로드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p14	그때 바람이 뚝 그쳤어요. 그 조그만 배는 항해를 멈췄고 로드니의 셔츠는 물에 휩싸여 내려갔어요. 로드니는 로드니가 서 있는 쪽에서 애써 바람을 불었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상자는 강을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오리들은 최대한 빠르게 쫓고 있었어요.
p15	로드니는 앉아서 다시 생각했어요. 로드니는 남은 세 개의 플랜 파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로드니는 반대쪽 강변을 바라봤어요. 생각해보니 플랜 파이를 던지기에는 너무 멀었지만, 발로 차면 가능할 것도 같았어요. "시도해 볼만 한 가치가 있어." 로드니는 외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발로 차려고 한다!" 구경하던 사람 중 누군가가 외쳤어요.
p16	서너 명 이상이 구경하러 달려왔어요. 로드니는 플랜 파이 하나를 앞으로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떨어뜨리고는 발로 가능한 한 세게 찼어요. 구경 온 사람들은 흥분의 함성을 질렀고, 조그만 개는 컹컹 짖었어요.
p17	발차기가 너무 강했는지 로드니의 몸이 가볍게 떠올랐어요. 그러나 플랜 파이는 하늘로 뜨지 않았어요. 플랜 파이는 크게 철퍼덕 소리를 내곤 로니의 발에 붙어버렸어요. 강 건너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크게 웃었어요.
p18	"오 이런. 먼저 터트리지 않고도 강 위로 넘겨 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해." 로드니는 시럽을 닦아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로드니는 자신이 차고 있는 쭉쭉 늘어나는 벨트를 떠올렸어요. 만약 그걸

	나뭇가지에 고정하면 새총을 만들 수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 새총으로 플랜 파이를 쏴 버린다면 플랜 파이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이지 매우 현명해." 자신에게 혼잣말했어요.
p19	로드니가 벨트를 가까운 나무에 고정하는 데 몇 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드니의 바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로드니는 바지를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구경 온 사람들은 로드니가 줄무늬 팬티만 입고 주변을 깡충깡충 뛰자 손뼉치고 환호했어요.
p20	새총이 준비되자, 로드니는 벨트를 가능한 한 멀리 잡아당겼고, 가능한 한 상체를 뒤로 젖혔어요. 로드니는 발사하기 위해 잔디로 몸을 젖혀야 했어요. "셋 - 둘 - 하나 - 발사!" 관중은 소리쳤고 로드니는 벨트를 놔버렸어요. 플랜 파이가 마치 원반처럼 강 위로 높게 회전하며 날았어요. "보세요, 크랩 아저씨. 플랜 파이가 가고 있어요." 로드니가 외쳤어요.
p21	이번엔 플랜 파이가 강을 통과했어요. 플랜 파이는 한동안 공중에 떠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래로 떨어지자 사람들은 달리며 팔을 뻗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크랩 씨가 외쳤어요. 크랩 씨는 조그마한 개에 발이 걸렸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둑에 넘어졌어요. "오 안돼." 로드니는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p22	로드니는 플랜 파이가 크게 철썩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로드니는 구경 온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들었어요. 로드니가 눈을 떴을 때, 크랩 씨는 축 처진 모자처럼 플랜 파이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랩 아저씨. 플랜 파이 하나가 남아 있고 제가 이걸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로드니는 외쳤어요.
p23	그러나 구경 온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아져서 크랩 씨는 가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의 기회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빠가 무척 화날 것이라 로드니는 생각했어요. 로드니는 바지를 집어 들고 각 다리 한쪽을 묶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실을 꺼냈어요. 로드니는 실로 마지막 플랜 파이를 둥글게 묶었어요. "이번엔 뭘 하는 거지? 강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외쳤어요.
p24	3. 끝내줘! "낙하산이야." 누군가가 답했어요. "로드니는 바지로 낙하산을 만들고 있다!" 바로 그게 로드니가 하는 일이었어요. 로드니는 플랜 파이를 조심스럽게 바지로 감싸곤 벨트를 가능한 한 멀리 잡아당겼어요.
p25	"셋 - 둘 - 하나 - 발사!" 구경 온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플랜 파이가 발사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이 턱 막혔어요.

	"우…… 아!" 플랜 파이는 하늘에서 공중제비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돌처럼 떨어졌어요. "저길 봐!" 사람들은 소리쳤고 모두가 몸을 피했어요.
p26	그때 바지는 바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마치 두 개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땅으로 천천히 떠내려왔어요. 플랜 파이는 사뿐히 크랩 씨의 준비된 팔을 향해 떨어졌고 전보다 더 큰 함성이 쏟아졌어요. "그가 해냈어! 로드니에게 응원 삼창을 보냅시다. 만, 만……" "만세!"
p27	플랜 파이가 안전하게 착지하자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로드니만 빼고요. 로드니는 돌아서서 자신에게 아쉬워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네 개의 시럽이 듬뿍 담긴 끈적이던 플랜 파이들과 셔츠와 좋은 바지 한 벌,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전혀 현명하지 않았어요. 아빠한텐 뭐라고 얘기하지요?
p28	로드니가 집에 오자 보드니 씨가 빵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 발견했어요. 로드니는 줄무늬 팬티 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서있자니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로드니는 아래를 내려다보곤, 끈적이는 시럽 자국이 가슴과 다리에 묻은 것을 알았어요. 로드니는 보드니 씨가 곧장 화를 내기 직전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보드니 씨는 웃었어요.
p29	"크랩 씨와 방금 통화했다." 로드니에게 말했어요. "아, 네." 로드니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온 정성을 쏟았어요." "크랩 씨는 네가 플랜 파이를 보내준 것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더구나." 보드니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크랩 씨는 아주 끝내주는 아침을 보냈다고 하더구나."
p30	로드니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로드니는 크랩씨가 그에게 펄쩍 뛰며 화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끝내주는 아침이요?" 로드니는 말했어요. "그래. 크랩 씨가 말하길 그렇게 이제껏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다는구나. 그 사람들이 크랩 씨의 가게를 아침 내내 오갔다는구나. 그리고 그게 다 너 덕분이라는구나." "흠, 저는 온 힘을 다했어요." 로드니가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보드니 씨도 웃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크랩 씨는 네가 끈적이는 시럽이 듬뿍 든 플랜 파이를 내일 다섯 개 더 배달해주길 바라더구나." 보드니 씨가 말했어요. "오늘과 똑같이 말이야."
p31	(그림)
about the	나는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연극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덕분에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라디오와 무대, 텔레비전

author **글쓴이의 말**	대본과 열세 권쯤의 동화책을 썼어요. 나는 끈적끈적하고 시럽이 듬뿍 든 플랜 파이나 번 빵을 정말 좋아하지만, 무언가를 발명해 본 적은 전혀 없어요. 나는 크리켓과 관련된 모든 것과 독서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족들이 사는 케임브리지 주변을 도는 것도 좋아해요.